

경기도, 지역개발 용자 부담 '뚝'

지역개발기금 용자이자율 인하 다음달부터 1.75% '전국 최저' 시·군 주민복지사업 활발 전망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현재 2.0%인 지역개발기금 용자이자율을 다음 달부터 전국 최저수준인 1.7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하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는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지역개발기금 용자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지만, 이들 시는 자치구에 용자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군에 용자하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인하 조치는 시·군의 건의를 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일부 시·군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자율이 부담된다"며 도에 지역개발기금 용자이자율 인하를 요청했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용자이자율이 낮아지는 만큼 시·군 부담이 줄어들어 기금 용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각 시·군의 장기 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다양한 제도 개선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개발기금이 도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기자 kimsy@metroseoul.co.kr



스캔라인 VFX 스튜디오 모습. /서울시

상암 DMC에 할리우드가?

어벤져스 시각효과 '스캔라인' 등 서울에 등지 틀고 1.1억달러 투자

향후 5년간 550여개 일자리 창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 '아쿠아맨' 등의 시각효과 제작에 참여한 '스캔라인'(Scanline VFX)의 아시아 지역 스튜디오가 서울 상암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스캔라인을 포함해 의료진단 바이오테크 기업인 '플래티넘 21'(Platinum21),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핀테크기업인 '핀헤이븐'(Finhaven), 실리콘밸리의 명문 스탠퍼드대학 내 유망 스타트업인 '빌드블록'(BuildBlock) 등 북미지역 혁신기업 4개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서울에 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한다. 향후 5년간 1억1000만달러를 서울에 투자하고 55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캔라인은 서울에 5000만달러를 투자해 스튜디오를 열고, 2023년까지 310명 이상의 우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플래티넘 21은 에이즈, 매독, 간염, 암 등 다양한 질병을 빠른 시간에 진단하는 '바이오아이큐 테스트 키트'를 개

발하는 기업이다. 서울에 지역본부를 만들고 앞으로 5년동안 약 5300만달러 상당의 지적재산 및 현금을 서울에 투자한다. 20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핀헤이븐은 캐나다 밴쿠버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핀테크기업이다. 유가 증권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서울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2023년까지 1000만달러를 투자한다. 3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빌드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혁신기업이다. 서울에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총 1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북미 지역의 미래가 유망한 신성장 기업 4개사로부터 1억1000만달러 상당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고, 550여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며 "서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코트라와 협력해 신기술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인천 계양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인천시, 국토부 입지심의 통과 창업공간·中企 R&D 시설 마련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예정지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계양구 병방동 일원 24만3294㎡ 규모 신규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국토부로부터 구두로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정식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등 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계양구는 사업비 1881억원가량을

투입해 사업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상, 단지 조성공사, 분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산단을 준공한다는 목표다.

구는 산단에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의 창업공간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시설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와 스마트산업단지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에 스마트 기술 등을 적용한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구는 이 같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맞춰 산단의 명칭을 '계양스마트산업단지'로 정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산업단지와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명칭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폐수나 유해물질이 나오는 공장은 산단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의견에 따라 명칭을 어떻게 정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양구 병방동 일원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서운일 반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산업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구 곽현·동양·박촌·병방동 일원에 3.35㎢ 규모로 조성되는 계양테크노밸리(계양신도시)는 가용 용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90만㎡ 규모 부지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자족시설 부지다.

계양산업단지 바로 옆 계양구 서운동 52만3035㎡ 규모 서운산단은 이미 100% 분양을 완료하고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노후 한옥, ‘씩~’ 수리하세요”

서울시, 공사비 최대 300만원 지원 주민 고충해소·한옥 보전에 팔걸어

서울시는 한옥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보수 위주로 진행해왔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는 한옥에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 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

기둥·대문 등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체 노후화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 시에 신청하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로 방문·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한식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목부재(기둥, 인방재, 대문 등)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지붕



한옥 점검 모습. /서울시

의 노후화로 일부분에 심한 기와 변형이 발생한 경우 ▲벽체의 노후화로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비를 지원한다.

오래된 한옥은 자연부재(목재, 흙) 노후화로 인해 부식,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 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보수가 쉽지 않아 지

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정책의 목적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한옥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4·19민주묘지, 추모공원 활용방안 토론

서울시, 재생 공론화 세미나 개최

서울시가 내년 4·19혁명 60주년을 맞이해 국립 4·19민주묘지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 '국립 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 4·19민주묘지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지역의 핵심적인 역사자원이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립 4·19민주묘지의 독자성을 시민과 공유하고 추모공원으로서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역사, 도시재생, 조경,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1부에서는 유나경 PMA 도시환경연구소장이 '우리 지역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법, 역사문화자산의 창조적 재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가 '국립 4·19민주묘지의 잠재력과 지역가치 확산전략'을 주제로, 김도훈 안산시 희망마을 사업추진 단장이 '모두를 위한 메모리얼 파크,



국립 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세미나 포스터. /서울시

4·16생명안전공원의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국립 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이슈와 추진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4·19사거리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달 중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